



차준희 | 한세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창세기 12장 1-3절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다. 이 본문은 구약 성서의 핵심에 해당된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땅 수여와 민족 형성과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주신다. 구약 성서의 나머지 본문들은 이러한 약속들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가나안 땅 진입을 눈앞에 둔 출애굽 공동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약속을 기대하였으며, 주전 587년 유다국가 멸망 이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공동체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약속에 의지하여 약속의 땅의 재진입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후대에게 영원한 희망의 터전이 되었다.

최근 들어 아브라함에 관한 연구들이 해외에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이다.²⁾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주된 연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1) 이 논문은 2010년도 한세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국구약학회를 대변하는 구약논단에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상을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다.³⁾ 그러나 이쉽게도 구약 예언서에 나타난 아브라함 관련 본문에 대한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로서 그 비중을 고려한다면 구약전승에서 여러 차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⁴⁾ 그러나 창세기 이외의 구약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전승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구약 예언서에서도 아브라함은 오직 7번만 언급된다(사 29:22; 41:8; 51:2; 63:16; 렘 33:26; 겔 33:24; 미 7:20).⁵⁾ 이 연구는 구약 예언서의 일곱 본문에 집중하여 아브라함 상이 예언서 전승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이해되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본문의 분석은 기급적 본문의 생성연대순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2)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R. J. Bautch, "An Appraisal of Abraham's Role in Postexilic Covenants," *CBQ* 71, 2009, 42-63; J. Blenkinsopp, "Abraham as Paradigm in the Priestly History in Genesis," *JBL* 128, 2009, 225-241; F. Crüsemann, "Abraham und die Bewohner des Landes. Beobachtungen zum kanonischen Abrahambild," *EvTh* 62, 2002, 334-348; B. Gosse, "Abraham and David," *JSOT* 34, 2009, 25-31; M. Köckert,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Congress Volume*, VTS 109, (Leiden: Brill, 2006), 103-128;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in: C. Bambröck/W. Klän(Hg.), *Gottes Wort in der Zeit: verstehn-verkündigen-verbreiten*, FS Volker Stolle, (Münster: Lit, 2005), 245-260; H. Spieckermann, "Ein Vater vieler Völker: Die Verheißungen an Abraham im Alte Testament," In: R. G. Kratz/T. Nagel(Hg.), "Abraham, unser Vater": *Die gemeinsamen Wurzeln von Judentum, Christentum und Islam*, (Göttingen: Wallstein Verl.: 2003), 8-21;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ZAW* 120, 2008, 49-66; H. L. Wiley, "They Save Themselves Alone: Faith and Loss in the Stories of Abraham and Job," *JSOT* 34, 2009, 115-129 등.

3) 이영미, "성서주석과 해석의 윤리: 창 22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 2008, 10-30; 김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30, 2008, 31-51; 오원근, "창세기와 회년서의 아브라함 상 비교," 「구약논단」, 30, 2008, 52-66; 배정훈, "회년서의 아브라함 전승," 「구약논단」, 30, 2008, 67-84; 김상래,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구약논단」, 30, 2008, 85-102; 유은걸, "'아브라함의 자손': 한 유대적 개념의 기독교화 과정," 「구약논단」, 30, 2008, 103-124; 한동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전승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31, 2009, 10-31; 서명수, "아브라함과 군자 상," 「구약논단」, 31, 2009, 32-51; 김재구,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31, 2009, 52-72; 기민석,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 허접한 남편, 사라의 쓴웃음," 「구약논단」, 31, 2009, 73-87; 김윤이, "아브라함 전승에 나타난 사라 죽음의 의미," 「구약논단」, 31, 2009, 88-112.

4) 아브라함 전승에 대하여 오경과 오경이외의 본문으로 나누어 그 본문을 자세하게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다음의 연구를 추천한다.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45-260.

5) R. E. Clements, אַבְרָהָם, *ThWAT* 1, 1973, 53-62, 특히 60.

2. 구약 예언서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급 본문

1) 에스겔 33장 23-29절(땅 없는 자의 땅 소유의 표상)

23)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4)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느도다 25)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피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26)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보냐 하고 27)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28)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29)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아브라함 관련 예언서의 일곱 본문 가운데 에스겔서 본문이 가장 오래된 본문으로 보인다.⁶⁾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에스겔 33장 23-29절은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에스겔이 전한 말씀이다. 이 단락은 에스겔 11장 14-21절과 유사한 주제를 다룬다. 즉, 두 단락 모두 바벨론 포로민들과 본토에 남은 유다의 생존자들 간의 양극화되고 상호 소외된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⁷⁾ 두 본문이 차이가 있다면 에스겔 11장 14-21절은 주전 587년 이전과 관련되고, 33장 23-29절은 주전 587년 이후와 관계된다는 점이다.⁸⁾

6) M. Köckert,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104; J. Blenkinsopp, "Abraham as Paradigm in the Priestly History in Genesis," 231 등.

7) D. Rom-Shiloni, "Ezekiel as the Voice of the Exiles and Constructor of Exilic Ideology," *HUCA* 76, 2005, 1-45.

8) P. M. Joyce, *Ezekiel: A Commentary*, (The Library of Hebrew Bible/Old Testament Studies; New York/London: T & T Clark, 2007), 193.

주전 587년 제2차 바벨론 유배 이후 바벨론의 제국주의 농경 정책은 빈 땅을 그대로 놀리지 않고 가진 것이 없는 일부 가난한 백성에게 포도밭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왕하 25:12; 렘 39:10; 40:9-10). 이로써 원 소유자와 현 소유자 사이에서 유다 땅의 소유권을 놓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당시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을 것이다.

이 단락을 양식으로 구분하면 23절은 말씀사건공식(Wortereignisformel)이고, 24-29절은 ‘논쟁의 말’ (Disputationswort)이라는 양식으로 분류된다. 논쟁의 말 양식 안에서 24절은 대적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25-26절은 수사적으로 표현된 고발이고, 27-29절은 심판의 말이다.⁹⁾

24절은 ‘이스라엘 황무한 땅에 거한 자들’의 입에서 나온 표현이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된 이후 그곳에 남겨진 자들은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중대한 즉 더욱 이 땅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고 진술한다. 이 진술이 유다 땅에 남겨진 자들이 상호 격려하는 것인지 아니면 땅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지는 논란이 된다. 그러나 그 진의가 ‘격려’이든 ‘권리주장’이든 여기서 아브라함은 폐허가 된 위기의 상황에서 새롭게 삶의 터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근거가 되어준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확신의 고백이 에스겔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는 점이다. 본토에 남은 자들이 보여주었던 “정건한 확신”(fromme Sicherheit)¹⁰⁾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 의해서 비판되고 있다.

여기서 에스겔은 아브라함을 근거로 하고 있는 신뢰의 토대는 문제 삼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에 의혹의 시선을 둔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25절), 이웃을 해친다(26절). 즉, 유다 땅에 남은 자들은 특정한 율법적 요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땅 소유에 대한 요구는 헛된 외침에 불과하게 되었다.¹¹⁾ 결국 아브라함을 근거로 한 그들의 확신은 부당한 것으로 입증된다. 율법의 불이행은 약속의 불이행을 초래했다. 약속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약속의 후손다운 삶을 살지 않았기에 그 약속과는 무관한 상황이 되었다. 에스겔은 무조건

9) H. F. Fuhs, *Ezechiel 2: 25-48*,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8), 187.

10) W. Zimmerli, *Ezechiel 25-48*, (BKA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²1979), 817.

11) W. Zimmerli, *Ezechiel 25-48*, (BKA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²1979), 817-818.

적인 약속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 에스겔은 아브라함을 들먹이는 자들을 향하여 ‘값싼 은총’ (billige Gnade) 대신 ‘완전한 전멸’을 선포한다(27-29절).¹²⁾ 이 에스겔의 심판선포는 주전 581년 바벨론의 예루살렘 3차 침공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참조, 렘 52:30).¹³⁾

이 단락에 반영된 아브라함의 모습은 땅이 없는 상태에서 땅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나타난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땅의 약속은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받은 땅의 약속은 무질서하고 황폐하게 된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었을 것임이 틀림없다.¹⁴⁾ 아브라함은 땅 없는 사람들의 땅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표상이었다. 그러나 에스겔에 따르면 그 표상의 수혜자는 모두가 아니라 합당한 자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2) 이사야 41장 8-13절(귀환의 표상)

-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아굽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3.

13) P. M. Joyce, *Ezekiel: A Commentary*, 194.

14)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1.

12)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1장 8-13절은 양식상 전형적인 ‘구원신탁’ (Heilsorakel)으로 분류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이견을 발견하기란 어렵다.¹⁵⁾ 최근에 티메이어(Lena-Sofia Tiemeyer)는 제20이사야서의 많은 부분이 포로기의 바벨론 상황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유다 상황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¹⁶⁾ 이러한 추세를 근거로 티메이어는 이사야 41장 8-13절도 유다의 상황에서 주어진 것으로 주장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논지는 이 구절의 전망 장소(viewpoint)가 유다라는 것이다. 즉, 9절의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에서 땅 끝과 땅 모퉁이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기사에서 나오는 우르와 하란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사야 본문에서 땅 끝과 땅 모퉁이를 언급하는 것은 근접거리에 있었던 바벨론보다는 먼 곳에 떨어진 유다에서 바라본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지는 이사야 41장 8-13절에 나오는 동사가 모두 완료형이라는 점에서 이 내용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그러나 이사야 41장 8-13절을 포로기 이후 유다적 상황에서 해석하는 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먼저 첫 번째 논지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 단락의 전망 장소는 바벨론과 유다 모두 가능해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논지로 제시된 완료형 동사는 문법적으로 예언자적 완료형(prophetic perfect)으로 간주 할 수 있기에 그 근거로서 힘을 잃는다. 또한 이 단락이 구원신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단락은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듯이 본국으로의 귀환을 앞두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생성된 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아브라함 전승

15) M. Köckert,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111.

16)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2의 각주 11에 언급된 수많은 제20이사야서 관련 연구물을 참조하라.

17)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3

이 에스겔 33:24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이사야 41장 8-9절에서는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도 올바르게 판단하듯이, 아브라함 전승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는 에스겔의 경우는 아브라함에 관한 언급이 본국 유다에서 나온 것이고, 제2이사야의 경우는 바벨론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발생 장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차이가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된다.¹⁸⁾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즉, 야곱과 아브라함이 언급된다. 야곱은 12지파의 선조로서, 아브라함은 최초의 족장으로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앞에 각각 평행적으로 세 가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즉, '나의 종'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순서로 서술된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이 부각된다.¹⁹⁾ 족장들은 그들의 주변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끄집어낸 인물로서 선택사상을 명확하게 표현하기에 특히 적절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선택사상이 창세기의 족장전승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시하는 본문이 창세기에 한번 나오기는 한다(창 26:24). 그러나 이 창세기 본문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밀접한 관계를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²⁰⁾ 이 표현에서는 아직 선택사상을 읽어내기는 어렵다.

이사야 본문은 독특한 방식으로 족장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고 그들과 관계된 것을 요점적으로 진술한다. 9절의 '땅 끝에서부터 불러냈다'는 진술은 아마도 갈대아 우르(Ur)에서 떠날 것을 지시받은 아브라함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운명에는 현재 땅 끝(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포로민들의 운명이 겹쳐진다.²¹⁾ 아브라함이 부름 받은 우르는 유다 백성이 억류된 바벨론을 암시한다.²²⁾ 본격적인

18) J. Blenkinsopp, *Isaiah 40-55*, (AB 19; New York: Doubleday, 2000), 200.

19)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1.

20) C. Westermann, *Genesis, 2. Teilband: Genesis 12-36*, (BK 1/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1), 522.

21) 이사야 41:8-13에서 '땅 끝에서부터'라는 표현은 바벨론의 포로기의 상황과 관계된다. W. Grimm/K. Ditter, *Deuterosejaja, Deutungen-Wirkung-Gegenwart*, (Calwer Bibelkommentare; Stuttgart, 1990), 94-105; K. Baltzer, *Deutero-Jesaja*, (KAT 10/2; Gütersloh, 1999), 135-144 등.

22) C. Jeremias, "Die Erzväter in der Verkündigung der Propheten," In: D. Herbert(Hg.),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FS W. Zimmerli,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7), 206-222, 특히 209;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4 등.

구원신탁이 시작되는 10절은 족장들의 하나님에게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동행 (Mit-Sein) 사상을 언급하고 있다.²³⁾ 10-13절은 이 모티브를 시적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 본문은 갈대아의 우르에서 ‘출(出)우르’ 함으로써 가나안으로 인도받은 아브라함을 언급함으로 현재 바벨론(갈대아)에 억류된 유대인들에게 ‘출(出)바벨론’의 약속을 확증시키고 있다.

이 본문에서 중심은 ‘땅 끝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는 사실에 있다. 이 점은 현재 바벨론에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의 상황과 직접 연결된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미지의 땅인 유다로 향한 사람의 모델로 간주된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되돌아온 첫 번째 귀환자로서 열방으로 흩어진 자들의 ‘귀환의 표상’으로 묘사된다.²⁴⁾

3) 이사야 51장 1-3절(후손 증대의 표상)

- 1)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 2)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 3)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51장 1-3절은 양식상 ‘구원의 약속’ (Heilsverheißung)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의’ (‘체테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뜻한다. 이사야 40-55장에서 이 단어는 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도우심을 뜻한다(사 41:10; 참조, 시 48:10b). 1a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들으라는 권면으로 시작한다. 1b절과 2a절이 병행구를 이루고 있는

23) A. Alt, "Der Gott der Väter" (1929), in: 동저자,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Bd.1, (München: 1959), 1-78, 21-22 그리고 44-45.

24) M. Köckert,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111-112.

것으로 보아, 1b절의 ‘반석’과 ‘구덩이’는 2a절의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²⁵⁾ 발쩌(K. Baltzer)는 이 ‘반석과 구덩이’를 아웨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²⁶⁾ 그러나 이것은 현재 본문의 맥락을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 이 비유에서 일차적으로 바위는 안정성을, 구덩이는 생산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⁷⁾ 아웨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에하드’)으로 있을 때 그를 불렀고 그에게 복을 내려 결국 창대하게 하였다(2b절). 포로기의 예언자는 이스라엘이 본래적인 비천한 시작을 돌아보고 혈혈단신이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깨달으라고 호소한다(2절).

2b절의 “내가 부르고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는 표현은 창세기 12장 1-3절에 담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다. 3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보다 명시적으로 진술한다. 여기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 한다는 것은 시온(예루살렘)의 재건을 가리킨다. 아마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여기서 아브라함 전승을 언급하도록 인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구원약속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가 되어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한 개인이었던 족장과 동일시된다. 그 족장은 혼자이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결국 큰 민족을 이루었다.²⁸⁾

이사야 51장 2절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41장 8-9절의 구절과는 몇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 이사야 41장 8-9절은 백성 전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이사야 51장 2절은 그 대상이 백성 전체인지 아니면 그 일부인지가 불분명하다. 이사야 51장 2절은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자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일부로 보는 해석을 따른다.²⁹⁾ 둘째, 이사야 41장 8-9절이 땅의 약속에 주목하고 있다면, 51장 2절은 불임 상태에서(참조. 창 15:2; 16:1-2; 18:11-15)의 후손의 약속(참조. 창 12:2; 15:5; 17:5-6)에 집중하고 있다.³⁰⁾ 이사야

25) R. N. Whybray, *Isaiah 40-66*, (NCB; Grand Rapids: Eerdmans, 1975), 155; J. Blenkinsopp, *Isaiah 40-55*, 326;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5 각주 29 등.

26) K. Baltzer, *Deutero-Jesaja*, (KAT 10/2; Gütersloh, 1999), 436.

27)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2.

28)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3.

29) J. Blenkinsopp, *Isaiah 40-55*, 325-326.

30)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4-55.

51장 2절에서 사라가 언급되고 있는 점은 불임의 상태에서 후손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과 관련된다.³¹⁾ 사라는 오경 이외의 본문에서는 여기서만 유일하게 언급된다. 아브라함은 ‘혼자’ 였는데(one, ‘에하드’, 혈혈단신), ‘창대’ (many)하게 되었다.

이사야 51장 2절은 아브라함이 무자식의 차원에서 약속의 후손을 창대하게 얻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여기서 혈혈단신의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소규모의 공동체로 머물고 있는 유다백성을 대변하고 그의 무자식의 상태는 유다의 미래가 불투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³²⁾ 이사야 51장 1-3절은 귀환 이후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수많은 후손들이 재 거주할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혈혈단신(one)에서 창성(many)하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포로지에 있는 유다사람들에게 본국에서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을 보여주는 ‘후손 증대의 표상’으로 대두된다.

4) 이사야 63장 15-19절(한계를 지닌 희망의 표상)

- 15)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기록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 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31) M. Köckert,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108.

32) J. L. Koole, *Isaiah, III/2: Isaiah 49-55*,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Leuven: Peeters, 1998), 154; J. Goldingay/D. Payne, *Isaiah 40-55*, Vol. II, (ICC; London: T & T Clark, 2006), 224 등.

- 18)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 19)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63장 15절-64장 11절은 커다란 한 단위를 이루며, 하나님의 새로운 개입을 하나님께 직접 간구하는 기도문이다. 양식으로 구분하자면 ‘민족 탄원시’(Volksklage)라 할 수 있다.³³⁾ 이 단락의 생성 시기는 포로기 아니면 포로기 이후 더 나아가 헬레니즘 시대로 보는 등 논란이 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전 587년과 520년 사이로 보는 것이 다수이다.³⁴⁾ 이 연대는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인지 좀 더 세분되어야 한다. 포로 귀환 이전과 이후는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은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 단락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음이 전제된다. 또한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아비누’)라고 호칭된다. 베스트만(C. Westermann)에 따르면, ‘아버지’라는 호칭은 신화적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어진 포로기 이후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사용된다.³⁵⁾ 또한 이 탄원자는 아브라함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직접 찾는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미지는 떨어질 수 없는 가족관계를 의미한다. 알버츠(R. Albertz)의 설득력 있는 연구에 따르면 포로기 이전의 아웨중심적 경건(Yahwistic piety)은 성전, 왕정과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후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중심의 경건(familial piety)이 발생했다고 한다.³⁶⁾ 이 탄원자의 진술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과 맞물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단락은 포로기 이후 제2이사야서의 구원약속의 지연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5a절은 간구, 15b절은 탄원, 16절은 확신의 고백, 그리고 17-19절은 탄식으로

33)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7.

34) Lena-Sofia Tiemeyer,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58과 각주 40에 언급된 최근의 다수의 연구물들을 참조하라.

35) C. Westermann, *Das Buch Jesaja Kapitel 40-66*; (ATD;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312.

36) R. Albertz, *A History of Israelite Religion in the Old Testament Period*, 2 vols.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400.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언급되고 있는 16절의 확신을 고백하는 부분이다. 탄원자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호칭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 같이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신들을 육신상의 아버지로 보는 주변나라의 신화적 사고들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구약 성서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즉, 자녀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관계가 간접적으로 표현되기는 한다(참조, 사 1:2; 63:8).³⁷⁾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나오는 ‘우리의 구속자’ (‘고알레누’)라는 명칭에서 하나님을 구속자라고 칭하는 것은 이사야 40-66장 이외의 본문에서는 아주 드물게 사용된다.³⁸⁾ 여기서 이 용어는 바벨론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속사건과 관계된다(사 43:14).³⁹⁾

탄원자는 여기서 아브라함도 야곱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도 자신들을 모른다고 탄식한다.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 됨이 여기서 부정된다.⁴⁰⁾ 여기서는 예언자에 의해서 아브라함 전승이 비판적으로 거론된다. 이 탄원은 아마도 포로기의 선포인 이사야 41장 8절과 51장 2절의 약속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⁴¹⁾ 이사야 41장 8절의 귀환 약속과 51장 2절의 후손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는지 귀환 약속은 나름대로 이루어졌지만 그 이외의 약속은 아직 요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는 아브라함 전승에 의존한, 아브라함을 뿌리로 하는 간접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소속성만이 그들을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⁴²⁾ 탄원자는 옛날부터 구원자이셨던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에 이른다(16b절).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다른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37) B. M. Zapff, *Jesaja 56-66*, (NEB; Würzburg: Echter Verlag, 2006), 411.

38) C. Stuhlmüller, *Creative Redemption in Deutero-Isaiah*, (AnBib 43;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70), 99-123.

39) R. J. Bautch, "An Appraisal of Abraham's Role in Postexilic Covenants," 48.

40) M. Köckert,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113.

41) B. M. Zapff, *Jesaja 56-66*, 411.

42) J. C. Salzma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3.

없다는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에서는 간접적인 희망의 근거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탄원자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발하여 아브라함 같은 아버지는 이제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고백한다.⁴³⁾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사 64:7). 탄원자는 옛날부터 구속자이셨던 하나님께 “그의 사랑(헤세드)과 그의 자비(רחם)”만을 기대할 뿐이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사 63:9).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를 보이고 이제는 사랑과 자비의 하늘의 아버지가 등장할 차례이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15절). 여기서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희망의 근거였으나 이제는 한계를 보여준 인물로 그려진다. 아브라함은 인간적 한계를 지닌 희망의 표상으로 묘사된다.

5) 이사야 29장 22-24절(뜻밖에 구원받은 자의 표상)

-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3)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43) M. Köckert,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114.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29장 22-24절은 구원의 말씀에 해당된다. 이 본문의 생성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된다. 예를 들어, 킬리안(R. Kilian)은 포로기로 가정하고,⁴⁴⁾ 빌트베르거(H. Wildberger)는 500년대 후반을 본문의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다.⁴⁵⁾ 또한 최근에 잘쯔만(C. Salzmann)은 본문의 연대를 더 후대로 끌어내려서 헬라시대(주전 333-64년)로 본다.⁴⁶⁾ 이 본문의 생성에 관하여 이 구절을 포로기 이전의 본문으로 보는 학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구절은 포로기-포로기 이후의 본문으로 돌리는데 무게 있는 이견은 없어 보인다.⁴⁷⁾

본문의 생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쟁은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을 벗어나기에 더는 분석하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언급된 부분이다. 본문의 현 상황은 야곱 족속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상태를 전제한다(22b절).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23-24절).

22a절에서 아웨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분으로 언급된다. 앞으로 야곱 족속을 회복하실 분은 이미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던 분이다.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처했던 위험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에 더 이상의 역사적인 배경을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까젤(H. Cazelles)에 의하면 이 본문에서 ‘구속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파다>는 ‘값을 지불하고 되찾는 종교적인 의미’ 혹은 ‘위험으로부터 한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을 뜻한다.⁴⁸⁾ 이 본문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측하건대 이 해방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창 12:10-20)와 그랄 지역에서 겪었던 선조모의 위기 사건(창 20:1-18)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여기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말씀의 맥락에서 개인적인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의

44) R. Kilian, *Jesaja 2, 13-39*, (NEB; Würzburg: 1994), 170-171.

45) H. Wildberger, *Jesaja 3. Teilband: Jesaja 28-39*, (BK 10/3;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2), 1137-1138.

46) J. C. Salzma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4.

47) C. Jeremias, "Die Erzväter in der Verkündigung der Propheten," 208; J. Blenkinsopp, "Abraham as Paradigm in the Priestly History in Genesis," 231 등.

48) H. Cazelles, *היב, ThWAT 6*, 1989, 514-522, 특히 517.

49) J. C. Salzma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4.

뜻밖의 개입으로 구원을 경험한 전형으로 사용된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뜻밖에 구원받은 자의 표상'으로 간주된다.

6) 미가 7장 18-20절(하나님의 구원의지를 매개하는 대표적 표상)

- 18)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 19)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 20)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 7장 8-20절은 미가서 전체를 마감하는 최종적 편집단락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미가서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 최종적 편집은 페르시아 시대 혹은 헬라 시대까지로 소급된다.⁵⁰⁾ 아무튼 이 단락이 포로기 이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미가서 연구자들 가운데서 이견이 거의 없다. 이 단락의 마지막 구성요소인 미가 7장 18-20절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담고 있다. 18절은 찬양의 양식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하고, 19절은 간구의 양식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기대하고 있다.

20절은 19절의 간구와 확신의 음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 구절에서 야곱과 아브라함이 병행구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집단적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쓰인 경우는 구약 성서에서 여기가 처음이다.⁵¹⁾ 보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표기된다(사 41:8; 렘 33:26; 시 105:6; 대하 20:7). 그 밖의 경우에서 이스라엘이 의인화되

50) R. Kessler, *Micha*, (HThKAT; Freiburg: Verlag Herder, 1999), 47.

51) R. Kessler, *Micha*, 311.

어 나올 때는 대부분 ‘야곱=이스라엘’이 사용된다. 하나님의 성실(‘에메트’)과 인애(‘헤세드’)라는 표현은 이를 통하여 족장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한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라는 진술에는 족장들에게 하신 맹세라는 모티브가 언급된다. 이러한 모티브는 오경의 본문과 관계된다. 이는 후손의 증가, 땅의 차지, 열방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라는 약속과 관련된다(참조. 창 12:1-3; 22:16-18; 24:7; 26:3; 50:24 등). 여기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의 연속성 혹은 불변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⁵²⁾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의 수혜자로서 이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이후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매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간주된다.

7) 예레미야 33장 23-26절(다윗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적 표상)

²³⁾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²⁴⁾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는 나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를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²⁵⁾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낮은 언약이 없ادت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²⁶⁾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 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붙잡히 여기리라

예레미야 33장 23-26절은 에브라임에 대한 위로의 소책자(렘 31-32장)와 연결된 구원예언의 맥락에 놓여 있다. 예레미야서 연구의 최고전문가인 티(W. Thiel)은 예레미야 33장 전체를 신명기사가 이후에 첨가된 부록본문(nachdr.: ein nachdeuteronomistischer Nachtrag)으로 간주한다.⁵³⁾ 이러한 견해는 예레미야 연구자들에게 대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이 본문은 바벨론 포

52)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5.

53) W. Thiel, *Die deuteronomistische Redaktion von Jeremia 26-45*, (WMANT 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1), 37.

로기를 전제한 포로기 이후의 본문이다.⁵⁴⁾ 사람들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 하나님이 선택한 두 가계, 즉, 북 왕국과 남 왕국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장냈다고 소리친다(24절).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과 족장들과 맺은 언약은 낮과 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천지의 법칙과 같이 변치 않고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신다(25-26절).

여기서 유다 백성의 조상인 족장을 언급하는 것은 국가의 멸망으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삭과 야곱도)은 다윗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으로 사용된다.⁵⁵⁾

3. 나가는 말

우리는 예언서에 나타난 아브라함 관련본문을 분석하면서 몇 가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예언서의 아브라함 상은 포로기-포로기 이후의 산물이다. 아브라함은 포로기 이전 예언서에서는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⁵⁶⁾ 포로기 이전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신탁들로 보이는 이사야 29장 22-24절; 미가 7장 18-20절; 예레미야 33장 23-26절은 모두 포로기 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블렌킨소프(J. Blenkinsopp)의 최근의 연구에서도 다시 한 번 입증된다. “아브라함은 바벨론 포로기 이전으로 보이는 그 어떤 성서본문에서도 포착되지 않는다.”⁵⁷⁾ 아브라함 전승 자체가 고대의 것임에도 불구하고⁵⁸⁾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바벨론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와 관련하여 등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재 언급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위기의 시대에 나타난다.⁵⁹⁾

54) W. Rudolph, *Jeremia*, (HAT 12; Tübingen: J. C. B. Mohr, ³1968), 217; C. Jeremias, “Die Erzväter in der Verkündigung der Propheten,” 216.

55)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50.

56) C. Jeremias, “Die Erzväter in der Verkündigung der Propheten,” 208.

57) J. Blenkinsopp, “Abraham as Paradigm in the Priestly History in Genesis,” 231.

58) H. Spieckermann, “‘Ein Vater vieler Völker’: Die Verheißungen an Abraham im Alten Testament,” 10.

59) J. C. Salzmänn,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260.

둘째, 예언서의 아브라함 상은 대부분 희망의 표상이다. 특히 땅 없는 자들에게 땅 소유의 희망적 표상이고(겔 33:23-29),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게 귀환의 표상이고(사 41:8-13), 자손이 없는 자들에게 후손 증대의 표상이며(사 51:1-3), 위기의 상황에서 뜻밖에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고(사 29:22-24), 하나님의 구원의 지를 매개하는 대표적 표상이며(미 7:18-20), 다윗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모범적 표상이다(렘 33:23-26). 아브라함은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의 근거가 된다.

셋째, 예언서의 아브라함 상은 현실과 관련하여 재해석되고 있다. 아브라함은 언급하고 있는 일곱 개의 예언서 본문 가운데 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 전승이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에스겔 33장 24절과 이사야 63장 16절이라는 두 본문이 그러하다. 전자의 예언자는 논쟁의 맥락에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의 고백에서 사용된 아브라함 전승을 비판하고, 후자의 예언자는 탄원기도에서 인간의 죄로 인한 절망적 상황에서는 아브라함 전승도 한계를 지니게 됨을 보여준다. 아브라함 전승은 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양하게 재해석된다.

아무튼 예언서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 즉, 이미 백성이 되었던 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백성이 될 자들, 이미 흩어진 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가 될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육화된 약속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중재를 통하여 주어질 이 세상의 열방을 위한 약속이다.”⁶⁰⁾ 아브라함은 “성취의 증거가 세계사적인 현실로 보면 전혀 불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는 신앙과 확고한 복종을 취하는 것이 너무 순진한 것이나 혹은 병리학적으로 깨달음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의 운반자이며 하나님의 모범적인 증인이다.”⁶¹⁾

4. 참고문헌

기민석,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 허접한 남편, 사라의 쓴웃음,” 「구약논단」, 31(2009), 73-87.

60) H. Spieckermann, “Ein Vater vieler Völker’: Die Verheißungen an Abraham im Alten Testament,” 11.

61) H. Spieckermann, “Ein Vater vieler Völker’: Die Verheißungen an Abraham im Alten Testament,” 11.

- 김상래, “야훼의 땅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미 재해석,” 『구약논단』, 30(2008), 85-10.
- 김윤이, “아브라함 전승에 나타난 사라 죽음의 의미,” 『구약논단』, 31(2009), 88-112.
- 김재구, “여성 아브라함들,” 『구약논단』, 30, 2008, 31-51.
- _____,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31(2009), 52-72.
- 배정훈, “희년서의 아브라함 전승,” 『구약논단』, 30(2008), 67-84.
- 오원근, “창세기와 희년서의 아브라함 상 비교,” 『구약논단』, 30(2008), 52-66.
- 유은결, “아브라함의 자손: 한 유대적 개념의 기독교화 과정,” 『구약논단』, 30(2008), 103-124.
- 이영미, “성서주석과 해석의 윤리: 창 22장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30(2008), 10-30.
- 서명수, “아브라함과 군자 상,” 『구약논단』, 31, 2009, 32-51.
- 한동구,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전승의 다문화적 해석,” 『구약논단』, 31(2009), 10-31.
- Bautch, R. J., “An Appraisal of Abrahams Role in Postexilic Covenants,” *CBQ* 71(2009), 42-63.
- Blenkinsopp, J., “Abraham as Paradigm in the Priestly History in Genesis,” *JBL* 128(2009), 225-241.
- Clements, R. E., אַבְרָהָם, *ThWAT* 1(1973), 53-62
- Crüsemann, F., “Abraham und die Bewohner des Landes. Beobachtungen zum kanonischen Abrahambild,” *EvTh* 62(2002), 334-348.
- Dietrich, W., “Die David-Abraham-Typologie im Alten Testament,” In: A. Grapner/H. Delkurt/A. B. Ernst, *Verbindungslienien*, FS W. H. Schmid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41-55.
- Görg, M., “Abraham-historische Perspektiven,” In: *Biblische Notizen* 41(1988), 11-14.
- _____, “Abraham: Glaubensgestalt für Israel und die Völker,” In: *Una Sancta* 51(1996), 294-307.

- Gosse, B., "Abraham and David," *JSOT* 34(2009), 25–31.
- Höffken, P., "Abraham und Gott, oder: Wer liebt hier wen?: Anmerkungen zu Jes 41,8," In *Biblische Notizen* 103(2000), 17–22.
- Jeremias, C., "Die Erzväter in der Verkündigung der Propheten," In: D. Herbert(Hg.),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FS W. Zimmerli,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7), 206–222.
- Köckert, M., "Die Geschichte der Abrahamüberlieferung,"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Congress Volume*, VTS 109, (Leiden: Brill, 2006), 103–128.
- Oeming, M., "Der Glaube Abrahams. Zur Rezeptionsgeschichte von Gen 15,6 in der Zeit des zweiten Tempels," *ZAW* 110(1998), 16–33.
- Rom-Shiloni, D., "Ezekiel as the Voice of the Exiles and Constructor of Exilic Ideology," *HUCA* 76(2005), 1–45.
- Salzmann, J. C., "Der Rekurs auf Abraham im Alten Testament," in: C. Barnbrock/W. Klän(Hg.), *Gottes Wort in der Zeit: verstehn-verkü ndigen-verbreiten*, FS Volker Stolle, Münster: Lit, 2005, 245–260.
- Sauer, G., "Die Abrahamgestalt im 'Lob der Väter': Auswahl und Intention," In: *Wiener Jahrbuch für Theologie* 1(1996), 387–412.
- Schmid, H., "Die Gestalt Abrahams und das Volk des Landes," *Jud.* 36(1980), 73–87.
- Spieckermann, H., "Ein Vater vieler Völker': Die Verheißungen an Abraham im Alten Testament," In: R. G. Kratz/T. Nagel(Hg.), "*Abraham, unser Vater*": *Die gemeinsamen Wurzeln von Judentum, Christentum und Islam*, (Göttingen: Wallstein Verl.: 2003), 8–21.
- Tiemeyer, Lena-Sofia, "Abraham—A Judahite Prerogative," *ZAW* 120(2008), 49–66.
- Wiley, H. L., "They Save Themselves Alone: Faith and Loss in the Stories of Abraham and Job," *JSOT* 34(2009), 115–129.

검색어

아브라함

땅 소유

후손

귀환

희망의 표상

The Image of Abraham in the Prophetic Books of the Old Testament

Jun-Hee Cha,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Ha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the Abraham related passages in prophetic books of the Old Testament. In the prophetic books of the Old Testament, Abraham is mentioned only seven tim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analysis, several conclusions are drawn:

First of all, the image of Abraham is the product of the exilic and post-exilic period. Abraham is not mentioned in the prophetic books which are written before the exilic period. Following verses are assumed to be written in the post-exilic period: Isaiah 29:22-24; Micah 7:18-20; Jeremiah 33:23-26. Abraham does not appear in the biblical texts which are considered to have been written before the exilic period. It is not by chance that the accounts regarding Abraham are concerned with the exilic and postexilic period, even though the tradition of Abraham

www.kci.go.kr

itself is old one. Restatement of the father Abraham emerges in the era of crisis, in the dark generation.

Secondly, the image of Abraham represented in prophetic books is, in general, the symbol of hope. Especially, Abraham appears to be the hopeful symbol of the land ownership to those who do not own the land(Ezek 33:23-29); Abraham is 'the symbol of restoration' to Diasporas who were scattered in the world(Isa 41:8-13); Abraham is 'the symbol of prosperity of descendants' to those who do not have descendants(Isa 29:22-24); Abraham is the representative symbol of interceding God's will for salvation(Mic 7:18-20); Abraham is the exemplary symbol of reinforcing the covenant of David(Jer 33:23-26). In short, it is concluded that Abraham is the foundation of hope.

Thirdly, the image of Abraham described in the prophetic books has been reinterpreted in connection with reality. In two out of the seven prophetic books which mention Abraham, Abraham tradition is evaluated negatively. Ezekiel 33:24 and Isaiah 63:16 is the best example showing this. The former shows a critical view about the Abraham tradition which appears in the confession of people who violate the commandment(Torah) and in the context of disputation. On the other hand, throughout the petitionary prayer, the latter shows that Abraham tradition also has a limit in desperate situation which is derived from the sin of mankind. The Abraham tradition is reinterpreted diversely according to the context of the community which uses it.

At any rate, Abraham, who is represented in the prophetic books, is the incarnation of God's promise for the Israelites: the Israelites include not only the people who already became his people, but also the people who would be his people. Furthermore, they encompass those scattered as well as those who would stand together. And Abraham continues to be the promise which, through the mediation of Israel, will be given to the nations in this world.

For Abraham, it seemed that to find the evidence of achievement was impossible according to contemporary thoughts of the world. In this doomful situation, putting someone's faith in God's will and having a firm trust to him could be a mockery. Or, according to pathologic view point, Abraham's behaviors could be interpreted as denying 'the understanding of the reality' that he had to give up. Nevertheless, Abraham was the person who demonstrated a right attitude toward God's sincere promise as well as an exemplary witness of God.

Keywords

Abraham

Possession of Land

Descends

Return

Symbol of Hope

- 투고일: 2012년 4월 14일
- 심사일: 2012년 5월 10일
-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14일

www.kci.go.kr